

영화 '시동' 정해인 “상필 역, 스트레스 풀려”

“단발머리 마동석, 처음 보고 충격 받았지만 놀라지 않은 척”

배우 정해인(31)이 상필을 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정로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영화 '시동' (감독 최정열)의 배우 정해인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날 정해인은 이전에 보여준 모습과 다른 캐릭터인 상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운을 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일단 시나리오가 재밌었고 평상시에 웹툰을 즐겨보는 편이 아니어서 웹툰 원작도 안 봤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봤는데 재밌고 전제가 만화책 같더라. 감독님께 말하니까 원작 만화인데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감독님과 얘기를 하다가 웹툰을 보면 아예 이 웹툰판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촬영할 때 제가 틀에 갇힐까 봐 걱정을 하신 것 같더라. 어차피 감독님이 웹툰 아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작품을 촬영할 당시를 회상하며 “사실 '시동'이 정확하게 '봄밤'과 겹쳤다. 스케줄표도 보면 '봄밤'과 '시동'을 왔다갔다하면서 찍었다. '봄밤'에서 밤샘 촬영한 뒤에 옥상에서 택일과 담배 피는 장면을 찍고 그랬는데, 이게 해소가 되



는 부분이 있더라. '봄밤'에서는 캐릭터상 간여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많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다. 그런데 또 여기와서는 거침없이 연기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리고 또 '봄밤' 넘어가고, 그러니까 더 재밌었다.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서로 못하는 것들을 채워줬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재밌고 즐긴 것 같다”고 전했다.

단발머리의 거석이형으로 분한 마동석에 대해 “사실 같이 하는 촬영분이 거의 없었다. 영상 통화 신도 각자 그냥 허공에 대고 혼자 한 거라서 짜고 맞춘 장면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며 “그래도 언젠간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발머리 모습을 봤냐고 묻자, “무인도 신에서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놀라지 않은 척을 하려고 했다”며 웃었다. 이어 “사실 무서웠다. 덩치가 있으신데 가발까지 쓰시니까 처음에 더 무서웠던 것 같다. 그런데 편안하게 해주셨다. 신기하기도 했는데 연예인 만난 느낌이였다. 지루 호흡하면서 만나면 지금도 못만나는 분들을 만나면 신기하다. 영화, 드라마로서 보는 저도 한명의 관객이라 그런 의미에서 신기했다”고 덧붙혔다.

한편 '시동'은 정체불명 단발머리 주방장 거석이형 (마동석 분)을 만난 어슬픈 반항아 택일 (박정민 분)과 무작정 사회로 뛰어든 의욕충만 반항아 상필 (정해인 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조급산 작가가 쓴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스토브리그’ 남궁민→‘낭만닥터 김사부’ 믿고 보는 배우들이 온다



연말과 새해를 알리는 두 편의 드라마가 SBS 드라마 라인업을 달군다. ‘베가본드’ 후속의 금토 드라마 ‘스토브리그’가 오는 13일, 월화드라마 ‘VIP’ 후속으로 방송되는 ‘낭만닥터 김사부2’가 내년 1월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믿고 보는 배우 남궁민과 한석규의 활약에 기대감이 모인다. 남궁민은 ‘리멤버’ ‘김과장’ ‘조작’ ‘닥터프리즌’ 등 다수의 전작을 흥행시키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묵직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받은 한석규는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1에 이어 시즌2로 다시 한번 ‘김사부’ 열풍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한국판 ‘머니볼’을 구현한 ‘스토브리그’는 팬들의 눈물까지 마른 쫄쫄이팀에 새로 부임한 단장이 낯선 시즌을 준비하는 ‘돌직구 오피스 드라마’로 효율과 합리를 위해서라면 시원하게 돌직구를 날리는 진정한 리더의 가치를 담

고 있다. 백승수 단장(남궁민 분)은 조직의 잘못된 시스템, 부조리, 악습에 정면 돌파, 병든 조직을 바꿔 나가며 우리가 기다려온 리더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조직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현실 속 사회인들에게 깊은 통찰과 통쾌함을 함께 선사한다.

‘낭만닥터 김사부2’는 지방의 초라한 돌담 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닥터’ 이야기로, 인생을 통째로 다시 생각하게 된 ‘노력형 공부 천재’와 행복을 만지 않는 시니컬한 ‘타고난 수술 천재’ 외과 펠로우 2년 차들이 한때 ‘신의 손’이라 불렸던 ‘괴짜 천재 의사’ 김사부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진짜 낭만’을 배워가는 내용이 담긴다.

한석규를 주축으로 한 진경, 임원희, 변우민, 김민재 등 시즌1의 정겨운 캐릭터들과 새로운 캐릭터 안효섭, 이성경, 소주연 등이 더해져 더욱 진한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즌2에서는 서우진(안효섭 분)과 차은재(이성경 분)가 김사부(한석규 분)를 만나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서우진, 차은재로 대변되는 모든 젊은 ‘어른이들’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위로와 낭만을 선물한다.

‘마이웨이’ 방은희, 두번째 이혼 심경 “행복한 모습만 보이고 싶었는데”

최근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정리한 배우 방은희가 이혼 후 심경을 전했다.

11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인생다큐 마이웨이’ (이하 ‘마이웨이’)에서는 30년 차 연기와 배우 방은희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공개된다.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하고 연극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방은희는 1989년, 무려 20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영화 ‘장군의 아들’에 출연하며 정식으로 데뷔했다.

최근 촬영에서 방은희는 2003년 첫 번째 이혼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이전까지 해온 강한 인상의 배역이 아닌 생활 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방은희는 허리 디스크와 화상 등 여러 약제 가운데서도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녀가 쉬지 않고 연기를 해왔던 이유는 연기에 대



한 열정 때문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혼 후 방은희가 재혼을 결심했던 이유도 “아들에게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아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1월 초 방은희는 두 번째 결혼생활을 정리했다. 그녀는 이에 대해 전 남편과 서로 다른 생활로 외로웠지만 “두 번째 결혼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가두는 삶이었다”고 고백했다.

뉴스1

키이스트 측 “김수현과 재계약 논의 중...1인 기획사 들은 바 없어”

배우 김수현의 1인 기획사 설립에 대해 소속사 키이스트 측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11일 뉴스1에 “김수현과 재계약을 논의 중”이라며 “1인 기획사 설립은 들은 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김수현이 이달 말 키이스트와 전속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종사촌 형인 이사람 감독과 함께 1인 기획사를 설립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7월1일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이후 지난 9월1일 방송된 tvN ‘호텔 델루나’에 특별 출연하며 오랜만에 대중들에게 인사했다.

최근에는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남자 주인공 물망에 올라있다.



MEGABOX 광주첨단점

- 1관 겨울왕국2
- 2관 주만지:넥스트 레벨
- 3관 감쪽같은 그녀
- 4관 주만지:넥스트 레벨
- 5관 나이브스 아웃, 아내를 죽였다, 나를 찾아줘
- 6관 주만지:넥스트 레벨, 나이브스 아웃, 라스트 크리스마스
- 7관 겨울왕국2, 블랙머니
- 8관 겨울왕국2
- 9관 겨울왕국2, 포드V페라리, 매리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 1관 감쪽같은 그녀, 주만지:넥스트 레벨, 아내를 죽였다, 블랙머니
- 2관 겨울왕국2
- 3관 겨울왕국2, 포드V페라리, 아내를 죽였다
- 4관 주만지:넥스트 레벨
- 5관 겨울왕국2, 주만지:넥스트 레벨
- 6관 나이브스 아웃, 라스트 크리스마스, 러브 엡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